

뜻생명이 행복한 세상을 발원합니다



한중일 불자들, 양양 낙산사에서 세계평화합동기원법회 봉행

한국 중국 일본 불교계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부처님 가르침을 통한 세계 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고민하는 한중일불교우호교류대회가 양양 낙산사에서 열렸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1~2일 양양 낙산사 일원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회의(이하 한중일 대회)를 개최했다.

행사는 첫 날인 1일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한중일 불교지도자들이 만나면서 시작했다. 오후 5시 교류 위원회의를 통해 실무 조정을 마친 한중일 불교계는 대표 회동, 대표단 환영만찬 등을 이어갔다.

교류위원회에서는 한국과 중국 일본 각 나라간 불교문화교류에 대한 협력이 진행됐다. 내년 제15차 한중일대회 장소로 일본 요코하마를 예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도 진행키로 했다.

한국불교종단협의회 회장 자승 스님과 중국불교협회장 환인(傳印) 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협의

회장 이또오 유이신(伊藤唯眞) 스님 등 한중일 불교 대표의 간단한 상견례를 통해 우의를 다지고 이번 대회에 대한 기대감을 보여줬다.

대표단 환영만찬에서 종단협 부회장 보선 스님(조계종 중앙총회의장)은 환영사를 통해 "한중일 삼국 불교계가 이번 모임을 속 깊은 소통의 자리로 삼아 하나된 목소리로 인류화합과 평화의 발원을 서원하고 유대관계를 보다 공고히 해 나가자"고 말했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정진 스님은 답례사에서 "한중일 삼국의 불교 교류와 화합은 줄곧 삼국 문화 교류 사상 가장 중요하고 핵심적인 내용이었다"며 "부처님의 가피 아래 이번 대회가 원만히 성공되기를 기원하며 황금유대가 더더욱 빛나기를 중심으로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일중한국제불교우호교류회의 부이사장 야스다 에이잉 스님은 답례사를 통해 "이번 대회 주제를 '불교문화의 사회에 있어서의 가치와 영향'인 것은 훌륭한 불교문화를 만

들기 위해 우선 불자들의 정신성을 높여야 하며 사회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질수록 걸맞는 높은 정신성을 추구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태고종 총무원장 인공 스님, 천태종 총무원장 관한대행 무원 스님, 진각종 총무원장 혜정 정사, 양양 낙산사 회주 정념 스님, 주지 무문 스님 등 한국 측 대표단 150여 명과 중국과 일본 대표단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환영만찬에는 모철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과 정상철 양양군수 등도 참석했다.

이튿날인 2일에는 38선 인근에 자리해 한국전쟁의 상흔이 남겨진 낙산사에서 한중일 불교대표단이나 한자리에 모여 세계평화를 기원하는 법회가 열렸다. 법회에서 한중일 삼국 불교 대표지도자들은 각각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발원문을 낭독했다.

설악산 신홍사 주지 우송 스님은 환영사에서 "신라 의상 스님은 정성스레 편집한 책을 불 속에 던지며 '부처님 가르침에 맞다면 이 책이 타지 않게 하소서'라고 발원했다. 그때 타지 않고 남은 글자를 모아 '법성계'를 지었다"면서 "세계평화라는 네 글자도 인류가 생존하고 이 세상이 유지되는 한 끝끝내 타지 않고 영원히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종단협 회장 자승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를 통해 "약육강식과 무한경쟁과 난개발로 인한 환경파괴는 이제 지구촌 곳곳에 가뭇갈 자 연재해와 경제적 위기를 반복적으

로 출현시키고 인류의 평화와 화합은 더욱 요원해지고 있다"며 "현대 사회에서 우리가 더욱 주목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 바로 불교가 이 사회에 전하는 사회적 가치이다"라고 말했다.

스님은 "혼자 누리기보다 함께 나누는 미덕, 폭력으로는 아무것도 해결할 수 없다는 것, 세상의 어떤 재화도 생명보다 귀중한 것은 없다는 것, 선을 이기는 어떤 악도 없다는 것을 세상에 인식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불교협회장 환인 스님은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에서 "개개인 모두는 무연대비(無緣大悲), 동체대비(同體大悲)의 정신을 이어 받아 인류의 복지, 사회조화, 세계평화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한중일 삼국 불교대표단은 공동발원문을 통해 세계평화와 인류의 행복을 위한 실천을 다짐했다.

종단협 부회장 직무대행 무원 스님(천태종 총무원장 직무대행),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명성 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회의의 상임이사 모찌와 니치우 스님은 공동발원문에서 "뜻생명이 조화를 이루는 세상, 차별 없는 평등 세상, 전쟁 등 폭력 없는 평화 세상, 서로 양보하는 도덕적인 세상, 대화와 협력을 통한 지혜로운 세상, 모든 고뇌가 사라진 불국토를 만들기 위해 삼국 불자들이 한 마음 한뜻으로 정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글=조동섭 기자 cetana@gmail.com 사진=박재원 기자 wanihollo@hanmail.net



한중일 불교 대표자들이 세계평화기원 메시지와 세계평화를 위한 공동발원문을 낭독하고 있다.



화합은 구성원 각자의 수행에서 비롯

제14차 한중일대회 강연회에서 한중일 지도자들 입모아

한국불교종단협의회(회장 자승·조계종 총무원장)는 11월 2일 양양 솔비치 호텔에서 제14차 한중일 불교우호교류대회의 일환으로 국제학술강연회를 개최했다.

행사에서는 한국불교종단협의회 부회장 혜정 정사(진각종 총무원장)와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웨칭 스님, 일중한국제불교우호회의 회장 이또오 유이신 스님이 각각 '불교문화의 사회적 위치와 영향'을 주제로 기조강연 했다.

수행 통해 공동체 정신 회복하자

혜정 정사는 기조강연에서 수행을 통한 공동체 정신 회복과 이를 통한 세상의 변화를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1000년 전 조성된

초조대장경과 팔만대장경은 외세의 침입을 부처님의 위신력으로 극복하고자 하는 서원에서 시작된 상생의 문화이자 동체대비의 실천"이라며 "분별하지 않고 하나된 생명, 전체라는 기능과의 조화 속에서 불교의 사회적 가치는 시작된다"고 말했다.

혜정 정사는 "대중(大衆)이라는 의미를 저버린 나머지 오늘날 인간을 수단시 하거나 물질의 기준으로 분별하는 경계를 넘나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해있다"며 "대중은 인간성 또는 불성, 자성의 이해 역량을 통해 확장시켜야 하는 공동체"라고 강조했다.

혜정 정사는 대중의 올바른 인식을 위해서는 모든 이들이 단순히 참

고 극복하는 것이 아닌 수행정진의 힘으로 타인을 이해하려는 능력을 키워가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상세계에 존재하는 모든 실체에 대해 접근하면서 나 자신이 어느 한 곳에 왜곡된 마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스스로 경계해야 한다고 자기 수행법을 설명했다.

혜정 정사는 "일체의 악을 행하지 않고 착한 일을 받들어 행하라(諸惡莫作 衆善奉行)"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말이지만 이를 실천하기란 어렵다"면서 "이를 실천하는 수행은 '대중'이라는 공동체의 바른 인식과 우리 모두가 연기적 존재임을 깨어 있는 삶으로 받아들여 화합의 바다로 회향함에 있다. 이 회향은 저마다의 수행으로 이끌었을 때 가능하다"고 말했다.

글=조동섭 기자, 사진=박재원 기자

큰지혜를 키워야 한다

중국불교협회 부회장 웨칭 스님(사진)은 기조강연을 통해 현대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류 문화의 근본성을 전변시켜 사회전체의 변혁을 이끌어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웨칭 스님은 "역사적으로 불교문화의 사회적 영향은 >문명의 진보와 발전을 이끌고 >세계가 주목하는 문화의 창조 >중요한 사회적 기능 발휘 >지역간 평화와 우의 증진의 성과를 이뤄왔다"고 소개했다.

스님은 "부처님법을 널리 펴는 것은 이런 한계를 극복하고 인류 공동의 복지를 실현하는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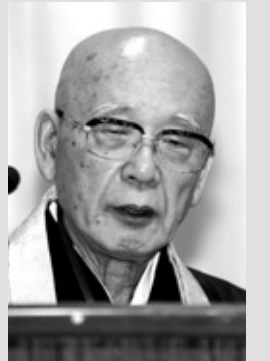


연기적 삶이 행복 부른다

일중한국제불교우호회의 회장 이또오 유이신 스님(사진)은 기조강연에서 개개인의 연기적 삶과 연기적 삶을 강조했다.

이또오 스님은 "인간은 이성이 있어 도덕에 맞는 행동을 하고 사회의 질서가 유지되지만, 인간의 탐욕이 이성을 앞지르며 많은 문제와 고통을 낳고 있다"고 말했다.

스님은 "무한한 인연 즉 무수한 원인과 조건의 중복에서 오는 총화의 힘이 중생 화합을 이룬다는 것을 바로 알아야 한다"며 "인연연기 법칙을 바로 알고 실천하는 것이 인류 화합과 공생의 길이다"라고 설명했다.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투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9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9190-3350 전라도 : 010-2311-0157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지 붕 공 사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대법고·법당천도법고·태징·목어

■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 / 764-2159, 011-264-3906 www.yangjikukak.com

■ 하남공장 :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011-264-3906 www.yjkukak.com